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원미라¹ · 이선희² · 김현경¹ · 유혜영¹ · 박정욱¹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¹,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시간강사²

Grandmothers' Experience of Child Care with Grandchildren: A Grounded Theory Approach

Won, Mi Ra¹ · Lee, Sun Hee² · Kim, Hyun Kyoung¹ · Yoo, Hye Yeong¹ · Park, Jung Uk¹

¹Doctoral Student,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²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grandmothers' experience of child care with grandchildren to understand how it affects their stage of life based o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ethods:** This study used grounded theory, a method of qualitative study,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grandmothers who have reared their grandchildren for at least 6 months and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fter listening to an explanation. Resource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dictated.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There were five steps in the process of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The first step of process was "affection motion" of rearing to help their daughters. The second step was "conflict" due to physical constraint and burden of child care. The third step was "acceptance" based on compensation and support and the fourth step was "development" in search of their ego. The last step was "integ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for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to grandmother to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according to the five steps of grandmother's child care experience process.

Key Words: Grandmother, Experience, Care, Grandchildren, Grounded theor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49.4% (Statistics Korea, 2011)로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여 자녀의 양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가운데 취업이 중단한 경우가 34%로 이중 자녀양육(64.9%)이 취업중단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

났다. 또한 직장여성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30.7%), '양육비용'(25.2%),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23.3%)고 확인되었다(Statistics Korea, 2006). 이처럼 값비싼 보육시설에 대한 부담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직장 여성의 고민이 되면서 딸이나 며느리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대리양육해주는 사회적 현상을 낳게 되었다. Kim과 Seo (2007)는 조부모의 양육 동기는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긴 숙명이라고 하였다. 노동부(2005)의 맞벌이 주부 양육보육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취업모의 70.9%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고 보

주요어: 외할머니 경험, 손자녀 양육, 근거이론

Corresponding author: Lee, Sun Hee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Hallym University road, Chuncheon 200-702, Korea,
Tel: +82-2-865-5382, E-mail: taiyou17@hanmail.net

투고일: 2012년 2월 24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고하였고, 이들은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맞벌이가 불가능하다(48.6%)고 응답하였다.

조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은퇴한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는 시기에 손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에게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더구나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양육관이나 교육관, 생활 습관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조부모나 부모 모두 손자녀를 돌보고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Park et al., 2008). Kim과 Seo (2007)는 조부모 양육에서의 어려움은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손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 경제적인 부담 등의 심리적인 부담과 점점 나빠지는 건강상태, 집안일과 육아로 인한 이중고, 건강증과 피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신체적인 부담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부모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양육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바뀌고 하루의 대부분을 손자녀 양육에 매달리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의 건강에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Kim, 2007; Oh, 2006; Whitley, Kelly, & Sipe, 2001).

한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보람되고 의미있는 일로 기쁨과 가치감,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지며 보상과 만족감을 느끼며(Kim, 2007, Kim, 2006, Kim 2002; Park, 2007), 삶의 목적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가족 정체성과 복지감을 유지하며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Sands, Goldberg-Glen & Thornton, 2005).

지금까지의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Chae, 2010; Kim, 2011; Seo & Kim, 2009)나 돌봄 만족도(Chae, 2010; Kim, 2010; Kim, 2007; Park, 2007)에 대한 양적 연구로 제한되어져 있다. 질적 연구가 소수 있으나(Kim, 2012; Kim & Seo, 2007)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경험이 생애주기에서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혈연관계에 의한 돌봄의 경우 취업모의 친정어머니가 53.4%로 가장 많은 양육비율을 차지(한국여성개발원, 200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로 통합되어 연구되어져 왔으며 외조모를 대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육경험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양육경험 과정을 제시하여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고 양육경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최소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계속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머니로 총 10명이었다.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와 그 연구참여자를 통해 소개 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비밀 보장, 녹음할 것과 중도 탈락이 가능함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면 동의한 자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졌다. 첫 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참여자가 선택한 자신의 집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의 면담은 참여자의 편의성에 따

라 전화나 직접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60분에서 120분 정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시 메모와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비언어적 태도와 반응, 관련 상황, 주변 환경, 연구자의 느낀 점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 직후 자료는 각 연구자가 녹음파일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분석 시 참여자의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 시 기록한 현장 노트와 메모 내용을 참여자의 진술에 추가 기록하였다.

4.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이며,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위나 논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등을 발표한 경험자들이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먼저, 근거이론에 관한 스터디를 하였고, 질적연구회에 모임에 매달 참석하여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분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면담 자료와 현장 노트 및 메모 등의 자료를 행간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찾아 명명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다른 자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한 후, 비슷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축 코딩 단계는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들을 관련짓는 과정으로 각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방코딩으로부터 출현한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의 밀도를 계속 높여 나갔다. 축코딩에서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을 통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근거이론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연결시켰다. 그리고 선택코딩 단계는 연구기간동안 행해진 모든 분석적인 작업을 통합하여 핵심범주를 결정하였고, 패러다임에 의한 하위범주들을 핵심범주에 연관시켰다. 그리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유형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매주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근거이론 틀에 따라 분석하고 토론과 확인 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각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읽어주어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서 연령은 55세부터 71세였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명, 중학교 졸업 3명, 무학과 대졸이 각 1명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대부분 중간 수준 이상이었다. 1명의 외손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가 5명, 2명을 양육하는 참여자는 5명이었으며, 남아 8명, 여아 7명이었다. 또한 양육기간은 6개월에서 10년 동안 양육을 경험하였으며, 참여자의 9명은 하루 3.5시간에서 12시간 양육을 하였고, 참여자 1명은 일주일에 4시간을 양육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건강상태는 양육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리디스크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참여자는 위암과 유방암의 과거력을 가진 양육자였으며 질환이 없는 참여자는 4명이었다. 양육 후에 3명의 참여자는 우울, 어깨와 허리통증의 질병이 생겼으며 나머지 7명은 양육 후 생긴 질병은 없었다.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한 줄 한 줄 읽어 가면서 자료의 의미를 찾아 개념화 작업을 하였고, 모호한 의미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원 자료로 돌아가 다시 읽고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념을 명명하였다. 이 결과 110개의 개념과 27개의 하위범주 및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축 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화 분석

근거이론에서 축 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이용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Figure 1).

Table 1. Paradigm and Category based on Concepts

Paradigm	Categories	Subcategory	Concepts
Causal conditions	Distrust in child care of others	Unbelief in child care of others	남이 봐주는 것을 믿지 못함/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음/ 손자녀를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이 싫음/ 손자녀가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것에 대한 불만/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딸이 힘든 것이 안타까움/ 혼자 애쓰는 딸이 안타깝고 안쓰러움/ 첫 아이를 잃은 딸의 안타까움/ 많은 역할을 하는 딸이 안쓰러움/
		Understand daughter's difficult situation	딸의 고민을 들어줌/ 딸의 직장 특성을 이해함/ 딸의 업무가 어려움을 이해함/ 딸의 상황을 이해함/
Central phenomenon	Care for daughter than me	Hope to reduce daughter's burden	딸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음/ 딸의 짐을 나누고 싶음/
		Devotement myself	나보다 자식을 생각함/ 힘들어도 자식일이니 도움/
		Hope to help self-realization of daughter	딸 부부의 관계를 위해 선택/ 딸의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 딸의 자아실현을 이워주고 싶음/ 딸이 직장을 계속 다니길 바람/
Contextual conditions	Conflict to choice of child care	Think avoidance	거절하고 싶음/ 눈앞이 캄캄함/ 다른 일을 찾고 싶은 마음/ 불편한 돌봄이라고 생각함/ 악몽과도 같은 양육일 것임/ 귀찮게 느껴짐/
		Unavoidability of choice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딸과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함/ 갈팡질팡함, 양가감정/ 속만 태우고 있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선택함/ 어쩔 수 없이 맡아 줌
	Restraint of body	Pain of body	갱년기로 열이 오름/ 갱년기 우울과 겹침/ 허깨비 같은 신체의 허약함/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음/ 신체적 고통/ 신체적 문제/ 신체적 피로/
		Burden of body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몸/ 신체적 부담을 느낌/ 양육과 가사일의 이중적 부담/ 지속되는 양육으로 인해 지쳐감/ 아이들이 한꺼번에 물려와 똑같이 해달라며 매달림/
	Burden of child care	Conflict due to child care	
Drop of confidence			손자녀의 부상에 대한 죄책감/ 손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손자녀의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됨/ 양육에 대한 책임감/
Unconcern		딸의 무관심에 대해 서운함/ 혼자만 해야 하는 일로 느낌/	
Intervening conditions	Compensation	Compensation of finance	경제적 보상을 받음/ 양육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함/ 양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음/ 보상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함/
		Lack of support resources	양육에 도움을 주는 기관을 기다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함/
	Gain support resources	남편의 지지가 도움이 됨/ 남편이 양육을 나누어 함/ 사위의 고마움에 힘입어 남편이 양육을 함께하는 엄마들과 함께 함/ 학교 선생님이 많은 칭찬을 함/ 나의 양육 노하우를 인정받음/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음/	

Table 1. Paradigm and Category based on Concepts (Continued)

Paradigm	Categories	Subcategories	Concepts
Action/interaction strategy	Think as vitality of the life	Worth of caring for the grandchildren	손자녀가 바르게 자람/ 손자녀가 이쁜 것을 함/ 보람된 일이라고 느껴짐/ 기특한 것을 하는 손자녀가 자랑스러움/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옴/
		Acquirement new vitality	새로운 손자녀의 양육이 기다려짐/ 재미있는 양육으로 다가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됨/
	Find self	Effort for me	나를 위한 짧은 휴식시간을 가짐/ 취미생활을 통해 해방감을 맞봄/ 내 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Improvement of health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함/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함/ 활동의 증가로 건강이 좋아짐/
Outcome	Opportunity for health promotion	Confidence in child care	양육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나의 양육에 대한 소신을 가짐/ 손자녀를 다루는 기술이 늘어남/
	Acceptance myself	Acceptance as a role	사랑의 대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 자연스러운 과정/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에 대한 봉사와 헌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
		Acceptance in affirmation	소일거리가 됨/ 재미있는 양육/
		Acceptance as a new task	새로운 숙제를 부여 받음/ 다른 과제가 생김/ 새로운 노동/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김/
Promotion of family relationships	Harmony of the home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 가족이 모두 모여 살게 됨/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됨/	
	Strength of the family relationships	부부가 함께 가는 길이 생김/ 부부의 정이 돌아남/ 남편과의 관계가 가까워짐/ 남편과 돈독한 정이 생김/ 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됨/ 딸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음/ 딸과 사위가 가까워진 것에 대해 즐거운 마음이 들음/	
	Anxiety about the future	Worry self circumstance after child care	양육이 끝나면 달라질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 손자녀 양육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느껴지는 회의감/ 양육 이후 대우에 대한 걱정/ 양육 후 찬밥신세가 될까 두려움/

1) 인과적 조건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과적 조건은 ‘타인의 양육에 대한 불신’, ‘안타까운 딸의 상황’으로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이 되는 ‘타인의 양육에 대한 불신’의 속성은 강도로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안타까운 딸의 상황’도 인식정도의 속성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 차원으로 나타났다.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으로 도출되었다.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은 인식 정도의 속성이며 그 인식 정도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3) 맥락적 조건

‘양육선택의 갈등’, ‘신체적 구속’, ‘양육 부담감’이 손자녀

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의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된 ‘양육선택의 갈등’은 그 강도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신체적 구속’은 태도에 따라 ‘수용적’인 차원에서 ‘거부적’인 차원으로, ‘양육 부담감’은 정도에 따라 ‘크다’의 차원에서 ‘작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4) 중재적 조건

손자녀를 돌보는 양육경험 과정의 중재적 조건은 ‘보상’과 ‘지지체계’로 도출되었다. ‘보상’의 속성은 그 정도에 따라 ‘많다’의 차원에서 ‘적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지체계’는 정도와 범위, 종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 정도에 따라 ‘많다’의 차원에서 ‘적다’의 차원으로, 범위에 따라 ‘넓다’의 차원에서 ‘좁다’의 차원으로 그 종류에 따라 ‘가족’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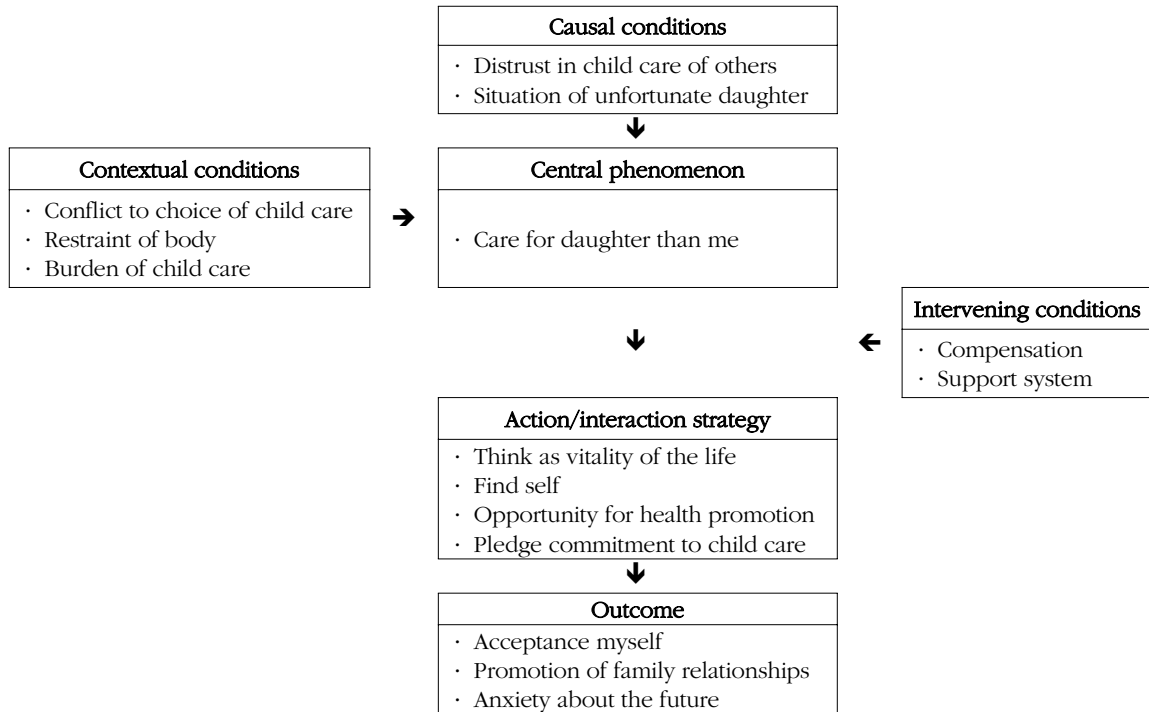


Figure 1. Paradigm model on the grandmother's experience process for caring their grandchildren.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는 ‘삶의 활력소로 여김’, ‘자아를 찾아감’,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음’, ‘양육의지를 다짐’으로 도출되었다. ‘삶의 활력소로 여김’ 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수용적’인 차원에서 ‘거부적’인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를 찾아감’의 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음’ 현상은 태도의 속성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으로, ‘양육의지를 다짐’ 현상은 강도에 따라 ‘강하다’의 차원에서 ‘약하다’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6) 결과

‘내 것으로 받아들임’, ‘가족관계 증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의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로 도출되었다. ‘내 것으로 받아들임’의 속성은 연속성과 범위로 연속성에 따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인 차원으로, 범위에 따라 ‘전체’의 차원에서 ‘부분’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증진’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깊다’의 차원에서 ‘얕다’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빈도 속성에 따라 ‘자주’차원에서 ‘간헐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4. 선택코딩

1) 핵심범주: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며 반드시 중심적이어서 다른 모든 주요 범주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료에 자주 드러나야 하며, 범주를 연결시킴으로써 발견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외할머니가 자신의 외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과정은 양육 선택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육을 대신해 줄 자원이 부족하고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을 돕기 위해 양육현장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힘든 양육 과정 속에서도 경제적 보상이나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양육의 과정을 자신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시켜가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간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로 도출되었다. 이 핵심범주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이 처음 양육의 길은 딸을 위한 선택으로 시작이 되지만,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가족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의 속성에는 태도, 빈도가 있다. 그 태도에 따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에 따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인 차원으로 나타났다.

2) 이야기 윤곽의 전개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것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 문장을 적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는 대부분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나 딸의 양육 부탁으로 양육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손자녀를 내 새끼라 여기고 돌봐 줄 사람은 자신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딸의 미래와 딸에 대한 애정으로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나 자신 보다는 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양육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갈등이 나타나며 더욱이 신체적 구속으로 인해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딸이나 사위로부터 양육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양육에 대하여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양육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이에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는 양육 그 자체를 삶의 활력소로 여기고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으면서 자신을 위한 노력을 틈틈이 하면서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아간다. 양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양육을 완전히 수용하기도 하고 가족관계가 증진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에게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양육이 끝나게 되면 자신의 양육의 노력이나 보람이 그대로 끝나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이 갈등의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자신을 위한 과정으로 거듭나면서 가족관계를 다져 나간다.

3) 유형분석

유형이란 축 코딩으로부터 관계의 정형화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확인된 범주의 속성과 차원 사이에서 반복되는 관계들의 유형을 일컫는다. 근거이론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자료를 그룹 짓는 것은 이론에 특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딸을 위한 선택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기]의 유형으로 수용형, 불안형, 성숙형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1) 수용형

수용형은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 계기가 타인의 양육을 믿지 못하고, 딸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선택한 양육 과정이 점차 안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인과

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약하며[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를 간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육 선택의 갈등’이 강하고, ‘신체적 구속’에 거부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크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이 적고, 지지체계 또한 적고 좁으며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수용적이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의지를 다짐’의 정도는 약하다. 또한 수용형은 중심현상에 대한 결과를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관계증진 범위로 알았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간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참여자 3, 참여자 5, 참여자 7, 참여자 10번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불안형

이 유형은 양육에 대해 수용하여 어느 정도는 발전하고 통합되기는 하지만 양육 후 자신의 양육의 노고의 빛이 바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식이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불안해하는 유형이다. 불안형의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강하며[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육 선택의 갈등’이 강하고, ‘신체적 구속’에 거부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크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은 많고, 지지체계는 적고 좁으며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의 활력소로 여김’의 현상에는 수용적이고 ‘양육 의지를 다짐’ 현상은 약하지만 ‘자아를 찾아 나섬’이나 ‘건강증진의 기회로 삼음’의 현상에는 적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불안형은 중심현상의 결과에 대해 부분적이나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족관계증진 범위는 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2번과 4번의 참여자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숙형

성숙형은 전략에 대해 가장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으로 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원을 찾아 대처하고 자신과 가족의 의미를 찾는데 적극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에 대한 인식정도와 강도가 강하며[가족관계 다져 나가기를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양육 선택의 갈등’은 약하고, ‘신체적 구속’ 수용적이며, ‘양육 부담감’ 또한 작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에서 ‘보상’이 많고 지지체계 또한 넓고 많으며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육 의지를 다짐’의 정도는 강하다. 또한

성숙형은 중심현상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관계증진 범위도 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간헐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참여자 1, 참여자 6, 참여자 8, 참여자 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손자녀의 양육을 선택하게 되는 시기부터 양육경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애정 발동기, 갈등기, 수용기, 발전기, 통합기의 5단계로 나타났다.

(1) 애정 발동기

외할머니가 양육을 선택해서 양육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의 시기이다. 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음으로서, 그리고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양육을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외할머니는 딸이 많은 역할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런 딸이 혼자 애쓰는 모습을 안쓰러워한다. 외손자를 봐주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모른 채 하고 못 봐준다고 하자니 마음이 아프다. 결국 외할머니는 자신보다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2) 갈등기

이 단계의 초기에는 양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이 여기저기 힘들 때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아이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마다 양육을 선택했던 것에 갈등을 느끼고, 그 갈등은 장기화 되거나 고조된다. 그러나 딸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손자녀의 양육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양육과 함께 가사 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배가 되고, 양육을 부탁한 딸은 자신의 양육 방식을 주장하면서 더욱 갈등이 고조된다. 더구나 손자녀가 다칠까봐 항상 유리그릇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행여 작은 상처라도 나면 딸이나 사위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된 듯하다. 이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에 대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욱 갈등을 느끼는 과정이다.

(3) 수용기

손자녀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갈등기에 느꼈던 신체적 고통이나 부담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따르고 처음보다는 덜 힘들게 느껴진다. 또한 자신의 자녀를 돌봐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위의 말에 힘이 나고,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은 중재적 조건으로 새로운 힘이 된다. 양육 노하우와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느낌이 들어 어느 정도 양육이 적응되어 가는 단계이다.

Table 2. Type of the Grandmother's Experience for Caring Their Grandchildren

Items	Categories	Type of acceptance	Type of anxiety	Type of maturity
Causal conditions	Distrust in child care of others	Mild	Strong	Strong
	Situation of unfortunate Daughter	Mild	Strong	Strong
Core category	Solidifying the family relationship	Passive/ Intermittence	Active/ Continuous	Active/ Continuous
Contextual conditions	Conflict to choice of child care	Strong	Strong	Mild
	Restraint of body	Rejective	Rejective	Receptive
	Burden of child care	Large	Large	Small
Intervening conditions	Compensation	Small	Many	Many
	Support system	Little/ Narrow/ Family	Little/ Narrow/ Family	Much/ Wild/ Family, Community
Action/interaction strategy	Think as vitality of the life	Receptive	Receptive	Receptive
	Find self	Passive	Passive	Active
	Opportunity for health promotion	Passive	Active	Active
	Pledge commitment to child care	Mild	Mild	Strong
Outcome	Acceptance myself	Temporary/ Partial	Continuous/ Partial	Continuous/ Whole
	Promotion of family relationships	Shallow	Deep	Deep
	Anxiety about the future	Intermittence	Frequency	Intermittence

(4) 발전기

양육을 수용하고 양육의 과정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손자녀가 무사히 바르게 자라고 기특한 짓을 할 때면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느낀다. 이로 인해 양육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바쁜 양육 일과 중에도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되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양육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의 양육에 대한 소신을 갖게 된다.

(5) 통합기

통합기는 ‘나보다 딸을 먼저 생각함’이라는 현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양육하는 과정이 흘러감에 따라 가족관계를 다져나가는 단계이다. 부모로서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손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미이고 책임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손자녀의 양육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통합기로 들어서면서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 관계가 가까워진다. 또한 남편과 양육을 함께 하면서 돈독한 정이 생기고 진정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됨을 느낀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양육 후 자식이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신의 양육 노고가 바래질까 불안하지만 양육으로 모두 함께 살게 되거나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양육자나 가족이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평생 애프터 서비스’라는 신종어가 나타났다(Oh, 2001). 그만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탐색하고 양육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여 각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의 첫 단계인 ‘애정 발동기’는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딸이 안쓰러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손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인과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Kim과 Seo (2007)는 조부모가 양육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부모로서 어쩔 수 없어서나 양육에 대한 보수로 나타

나 양육을 선택한 동기가 본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조부모의 양육 선택은 부모로서의 의무로 여겨지나 본 연구에서는 외할머니가 며느리보다는 딸에 대한 애뜻함이 더하기 때문에 양육을 선택하게 된 것에 차이가 있다. 한편, Kwon (2000)은 대리양육에 대한 자녀들의 부탁을 조모는 자손에 대한 책임감, 자녀들과의 화목과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역할 참여기회로 받아들여기도 하였다.

‘갈등기’는 자신의 양육방식과의 차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과 손자녀가 다칠까봐에 대한 부담감으로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 부담감과 갈등은 다른 연구(Gang, 2009; Kim & Seo, 2007; Kwon, 2000; Lee, 2007)에서도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Kim과 Seo (2007)는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손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 가족들과의 내적 갈등, 나빠지는 건강상태, 집안일과 육아로 인한 이중고, 건강증과 피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Lee (2007)는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 ‘나도 아프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고 하여 손자녀를 키우는 갈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 대부분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가사와 육아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평균 나이가 62.5세(Lee & Bauer, 2009)인 것을 감안할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6; Whitley, Kelley & sipe, 2001). 또한 이들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 정서, 심리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조부모보다 어려움 나타내었다(Chae, 2010; Kim, 2011; KIm, 2007; Kim & Seo, 2007; Seo & Kim, 2009). 이러한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갈등이 고조되어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조부모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돌보는 손자녀들의 성장발달과 신체,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조부모들이 이러한 갈등을 잘 극복하고 신체,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기’는 손자녀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자녀를 돌봐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위의 말에 힘이 나고,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중재적 조건으로 새로운 힘이 된다. Lee (2007)의 연구에서는 ‘부담감 없는 손자녀 양육’으로 표현되어 갈등의 시기를 거쳐 양육에 적응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연구(Kim, 2007, Kim, 2006, Kim 2002; Park, 2007)에서도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가치가 있으며 보상과 만족감을 느끼며 양육을 지속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발전기’는 손자녀 양육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 양육을 보람된 일로 받아들이며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상호작용 전략이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키우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며, 기쁨과 가치, 자기성장의 기회이며 만족감을 갖는다(Lee, 2007; Kim, 2002)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통합기’는 손자녀의 양육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진되어 가족이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Kim, 2009; Kim, O. N., 2007; Sands, Goldberg-Glen, & Thornton, 2005)에서도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세대 간 연결 및 지속적인 가족 정체성과 복지감을 유지하여 가족관계의 유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여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통해서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의 5단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지지하고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리 양육 역할을 하고 있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여 외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경험 과정과 그 의미체계를 기술함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위한 이론 개발에 기여하고자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은 [가족관계 다져 나가기] 과정으로 가족전체의 차원에서 상호연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육경험 과정의 5단계인 애정 발동기, 갈등기, 수용기, 발전기, 통합기의 각 단계에 따라 수용형, 불안형, 성숙형의 세 유형별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위해 어떤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외할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을 위한 이론 개발에 실증적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자녀를 돌보는 외할머니를 위한 양육경험 과정의

단계에 맞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육경험 과정과 유형에 따라 외할머니에게 제공한 간호중재가 손자녀의 성장발달이나 건강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Chae, H. R. (2010). *A study on rearing burden and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who raising up their grand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Jang, H. K., Hong, S. A., Lee, S. W., Kim, Y. R., Kim, E. H., & Kim, G. E. (2006). *Survey of care work within famil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6 Research paper-02.
- Kang, Y. S. (2009). *The Studies and Research on parenting issues and improvement in the form of various child care pattern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married wome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im, D. Y. (2005). *Study on factors related Psychological welfare of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E. J. (2011). *A study on caregiving stress of grandmothers raising infant grandchildren: At double 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mother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E. J., & Seo, Y. H. (2007).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ing by grandpar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8(2), 175-192.
- Kim, J. E. (2002).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Unpublished master'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M. J. (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14-923.
- Kim, M. J.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fe satisfaction i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M. S. (2010). *A study on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upon grandmother's caring satisfaction of grandchildren*.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Kim, O. N. (2007). Caregiving burden and rewards for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6, 59-84.
- Kim, Y. H. (2012). *The story of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

- children in infancy*.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 Kwon, I.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6(2), 212-223.
- Lee, H. S. (2007).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n psychological experience of grandmother who care for a grandson*. Unpublished master'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 Bauer, J. W. (2009). Profile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y*, 8(2), 455-475.
- Ministry of Labor(2005). Dual-career Status of child care parenting housewives. <http://www.moel.go.kr>
- Oh, J. A. (2006).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3), 368-376.
- Oh, Y. S. (2001). *Ohyoungsu's little evergreen*. Dulnyouk Publishing Co: Gyeonggido.
- Park, K. A. (2007). A study of how social support affects rewards for grandparent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25-45.
- Park, S. Y., Kim, S. H., Kim, J. S., Park, Y. I., Jeon, C. A., & Lim, H. S. (2008). *Parent education: For real meeting with your children*. Kyoyookbook: Gyeonggido.
- Sands, R. G., Goldberg-Glen, R., & Thornton, P. L.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well-being: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4).
- Seo, H. L., & Kim, Y. H. (2009).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care-giving experiences of grandparents and their social service need.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67-296.
- Shin, K. L., Kim, M. Y., Kim, J. S., Shin, S. J., & Kang, J. S. (200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3rd ed.). Seoul: Hyunmoonsa.
- Statistics Korea. (2011, 2006). <http://www.kostat.go.kr>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 Whitley, D. M., Kelley, S. J., & Sipe, T. A. (2001).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Are They at increased risk of health problems? *Health and Social Work*, 26, 105-114.